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기업 A사

e-Procurement 시스템 재구축 및 고도화

CUSTOMER CASE STUDY

업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임직원 수 약 6,500명

매출액 약 6조 7,000억 원(2024년 기준)

■ 2022.06 ~ 2023.04/2023.11 ~ 2024.07

Customer Comments

**확장성·연결성·보안성 '삼박자' 갖춘 구매시스템으로
공급망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A사 구매기획팀 담당자

Project Overview

Challenges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구매 기능 개선 및 활용 제약, 보안 취약성 대두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기능 개선 및 활용 제약

구매/ 협력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저하

IE 서비스 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 대두

Solutions

구매 업무 효율성 및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특화 구매 프로세스 구현

제조업 특화
구매 프로세스 구현

주요 구매 기능 내재화,
다양한 편의 기능 제공

HTML5 웹표준 기반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보

Results

확장성·연결성·보안성 '삼박자' 갖춘 구매 시스템으로 공급망 운영 효율 향상

Add-on 개발을 위한
시스템 확장성 확보

구매 정보 가시성 향상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최신 범용 브라우저와의 호환성 확보,
보안 취약성 해소

Challenges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구매 기능 개선 및 활용 제약, 보안 취약성 대두

A사는 2005년 구축한 e-Procurement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구매 기능 활용과 데이터 확인이 어려웠고, 시스템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에도 제약이 존재해 실제 구매 업무 대부분을 ERP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보안 취약점 노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최신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했다.

또한, A사에 특화된 구매 기능뿐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리스크 관리, 실시간 리포트 기능 등 다양한 업무 편의 기능에 대한 내부 사용자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시장 환경도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새로운 구매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Our Solution

구매 업무 효율성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한 기업 특화 구매 프로세스 구현

엠로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구매비용 관리 및 구매 데이터 가시성 확보, 계약 업무 효율성 향상 등 A사의 주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e-Procurement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케이블, 배선 구매 등 A사의 구매 업무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형의 입찰 및 계약 관리를 지원하는 구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시스템 오픈 이후 한 차례의 고도화를 통해 엑셀 등 수작업 기반으로 관리하던 협력사 평가, 외주생산정보 관리 기능도 시스템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력사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Results

확장성·연결성·보안성 '삼박자' 갖춘 구매 시스템으로 공급망 운영 효율 향상

A사는 엠로와 함께 재구축한 e-Procurement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운영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

우선 입찰, 발주, 납품 등 주요 구매 기능을 e-Procurement 시스템에 내재화해 협력사와 협업 과정 전반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협력사 등록 및 평가 역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협력사 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던 구매 실적 정보나 장기 미납품 항목 데이터를 대시보드 기능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

시스템 운영 관점에서도 보안성 및 확장성이 강화됐다. 새로운 e-Procurement 시스템은 HTML5 기반 웹표준을 바탕으로 Edge, Chrome, Firefox 등 범용 브라우저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안 취약점 관련 이슈도 해소했다. 이 외에도 SAP 등 타 시스템과의 매끄러운 연동, 추가 기능 개발을 위한 시스템 확장성도 확보해 A사 특화 기능에 대한 add-on 개발, 법인 및 계열사 확산 및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